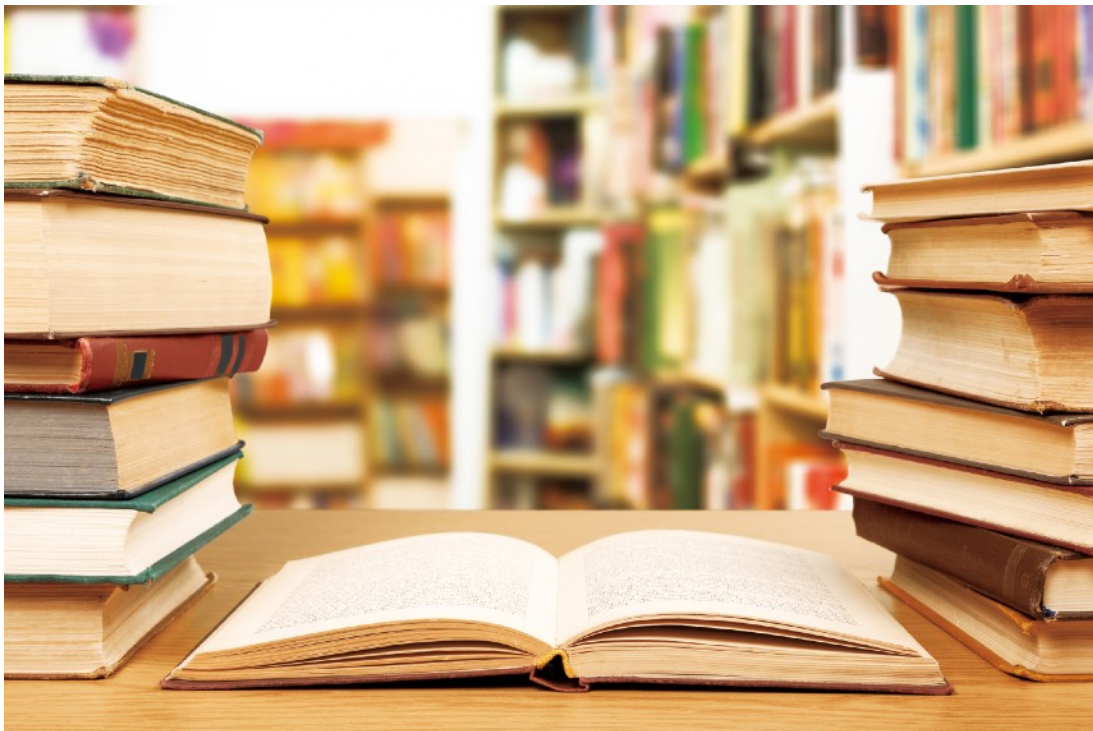


주요 내용

1. [한국인의 무속 관련 인식]
개신교인, '점을 본 경험 있다' 23%!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 1) 코로나 이후 소득격차 실태
 - 2)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개신교인, ‘점을 본 경험 있다’ 23%!

요즘 대선과 맞물려 점, 무속에 대한 논란과 관심이 크게 늘었다. 원래 연초에는 신년 운세를 많이 보아서 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때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대선후보와 그 부인의 무속 관련 논란 때문에 새삼스레 무속이 관심을 얻게 되었다.

이성의 시대, 과학의 시대에 웬 무속인가 하겠지만 무속은 우리 가까이에 널리 자리 잡고 있다. 네이버 쇼핑에서 ‘점집’을 치면 2551건이 검색된다. 점집 소개 글이나 점을 보는 용품을 파는 광고들이다. 마찬가지로 네이버 쇼핑에서 ‘사주’를 치면 32,881건이 검색된다. 여기에는 점을 의미하는 ‘사주’와 상관없는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대개가 운을 치는 사주나 사주 관련 용품에 해당한다. 또한 우리나라 목사가 10만 명 정도 되는데 무속인은 40만 명이나 된다는 통계도 있다.

사람들은 얼마나 점을 볼까? 왜 볼까? 그러면 개신교인은 어떨까? 이에 대한 궁금증을 넘버스 132호에서 풀어본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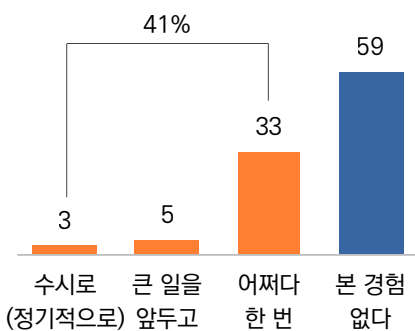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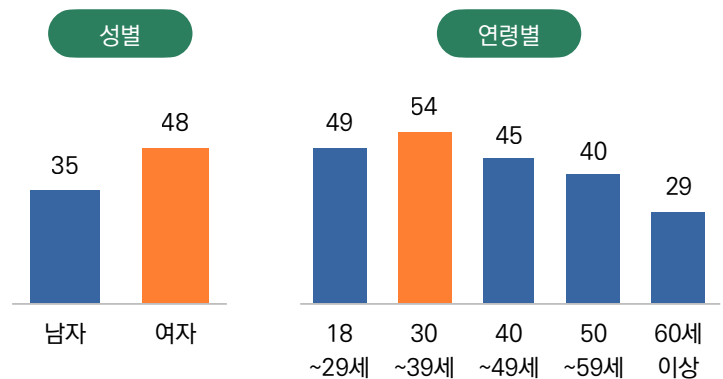
국민 41%, '점'을 본 적 있다!

- ▶ 최근 5년 사이에 전체 국민 가운데 점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1%였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점을 더 많이 본 것으로 조사되었다.
- ▶ 점은 나이든 사람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사 결과 젊은 사람들, 특히 30대가 점을 가장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나서 뜻밖이었다.

[그림] 최근 5년 사이 점을 본 경험 (%)



[그림] 최근 5년 사이 점을 본 경험 있는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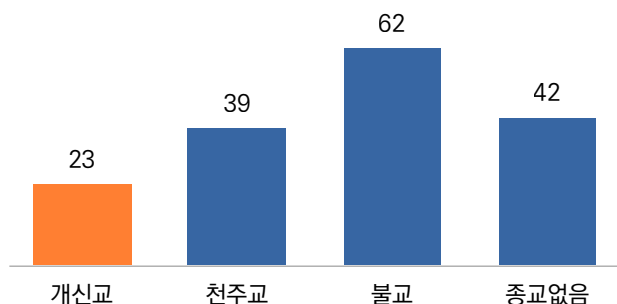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제164-2호, 2022. 01 .19(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2.01.07.~10 조사)

◎ 개신교인 23%, '점'을 본 적 있다!

- ▶ 종교별로는 개신교인 가운데 23%가 점을 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러 종교 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이었다.
- ▶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믿는 종교가 없다는 사람들 가운데 42%가 점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 결과로 보면 종교가 없다고 한 사람들도 그 마음 속에 종교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아무리 현대가 과학화되고 이성이 만물의 척도로 작용하는 시대라고 하더라도 종교성은 사람들 마음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최근 5년 사이 점을 본 경험이 있는 비율 (종교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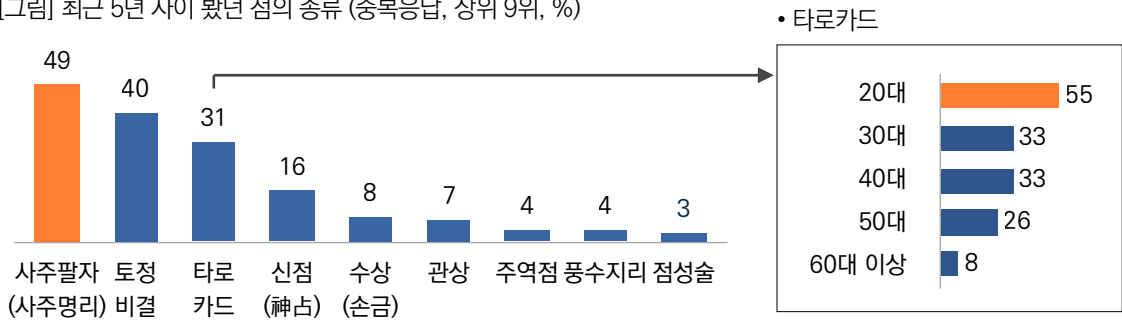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제164-2호, 2022. 01 .19(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2.01.07.~10 조사)

02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점, '사주팔자' 49%!

- ▶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점은 '사주팔자(사주명리)'(49%)이고 그 다음이 '토정비결'(40%)이다.
- ▶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사주'를 검색하면 국내도서가 1,666권, '명리'를 검색하면 국내도서가 813건이라고 결과가 나오는데, 눈으로 얼핏 훑어 보아도 일부 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사주팔자, 사주명리와 관계된 책일 정도로 사주팔자에 대한 관심은 널리 확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 재미있는 것은 서양의 점인 '타로카드'를 이용한 비율이 31%로 적지 않았는데 특히 점을 본 20대 가운데 55%가 타로점을 봤을 정도로 20대의 선호도가 높았다.

[그림] 최근 5년 사이 봤던 점의 종류 (중복응답, 상위 9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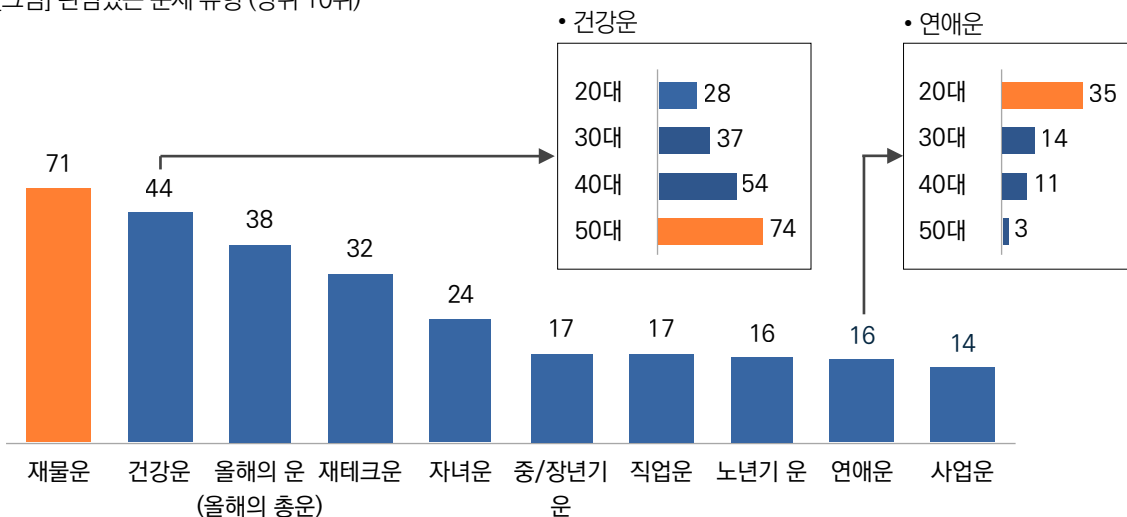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제164-2호, 2022. 01 .19(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2.01.07.-10 조사)

◎ 가장 관심있는 운세 유형, '재물운' 71%!

- ▶ 운세 서비스에 대해선 주로 4050 장년층의 관심도가 높은 것 같다는 평가가 많다.
- ▶ 운세 유형별로는 '재물운', '건강운', '올해 총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으며, 특히 고연령층은 '건강'이나 '가족' 관련 운세를, 저연령층은 '직업', '연애'에 대한 운세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관심있는 운세 유형 (상위 10위)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리포트, '2022 새해 계획 및 운세서비스 이용 관련 조사', 2022. 01 .19(전국 만19세~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2.01.05.-7 조사)

03

점을 보는 이유, '내 운세가 궁금하다' 52%

- ▶ 점을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업/직업/진로 관련', '애정 관련', '재산 관련'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길흉 화복이 궁금해서도 있지만 '전반적인 인생사, 운세가 궁금해서'(52%)가 가장 큰 이유였다.

[그림] 점을 본 이유 (중복응답, 상위 7위, %)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제164-2호, 2022. 01. 19(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2.01.07.~10 조사)

◎ 20대, '애정' 문제 때문에 점을 본다 40%

- ▶ 연령별로 점을 보는 이유가 조금씩 다른데, 20대는 '애정 관련', 30대는 '전반적인 인생사', 40대는 '이동/지리 관련'이었다.
- ▶ 점은 사람들이 자기 연령대에서 맞닥뜨리는 생활의 고민과 거기서 내려야 하는 중요한 결정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점을 보는 것이다. 즉 현재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점을 본다고 할 수 있다.

[표] 점을 본 이유 (연령별, 중복응답, 상위 7위, %)

연령	전반적인 인생사, 운세, 일상생활 관련	재미로, 특별한 이유 없이	시험, 입시, 취업, 승진, 이직 등 학업/직업/진로 관련	궁합, 연애, 결혼, 이혼 등 애정 관련	재테크, 투자, 사업 등 재산 관련	이사, 이장, 못자리 지정 등 이동/지리 관련	질병, 다이어트, 등 건강 관련
전체	52	28	24	24	15	11	9
18~29세	47	35	34	40	10	12	9
30~39세	60	25	27	32	20	8	8
40~49세	55	28	28	11	18	15	6
50~59세	52	27	18	18	15	10	8
60세이상	48	26	13	17	12	8	11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제164-2호, 2022. 01. 19(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2.01.07.~10 조사)

◎ 개신교인도 자기 운세 궁금해서 점을 본다 56%!

- ▶ 점을 보는 이유는 종교별로 차이가 없었는데, 개신교인도 다른 종교인들처럼 ‘전반적인 인생사’에 대한 궁금증(56%), ‘애정 관련’(23%), ‘재미로’(23%) 점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 ▶ 개신교인도 자신의 삶을 운명론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점을 본 이유 (종교별,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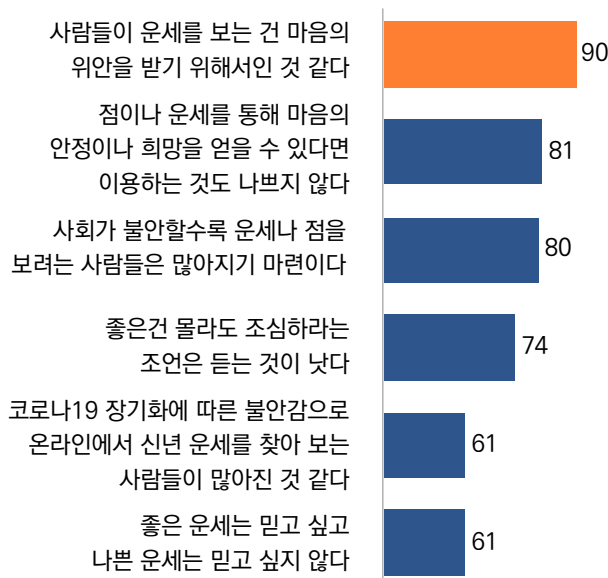
종교	전반적인 인생사, 운세, 일상생활 관련	재미로, 특별한 이유 없이	시험, 입시, 취업, 승진, 이직 등 학업/직업/진로 관련	궁합, 연애, 결혼, 이혼 등 애정 관련	재테크, 투자, 사업 등 재산 관련	이사, 이장, 못자리 지정 등 이동/지리 관련	질병, 다이어트, 등 건강 관련
전체	52	28	24	24	15	11	9
개신교	56	23	18	23	16	14	12
천주교	55	31	25	19	18	5	2
불교	53	21	25	27	11	13	10
다른종교	21	59	0	0	19	0	0
무교	51	33	25	23	16	10	9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제164-2호, 2022. 01 .19(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2.01.07.-10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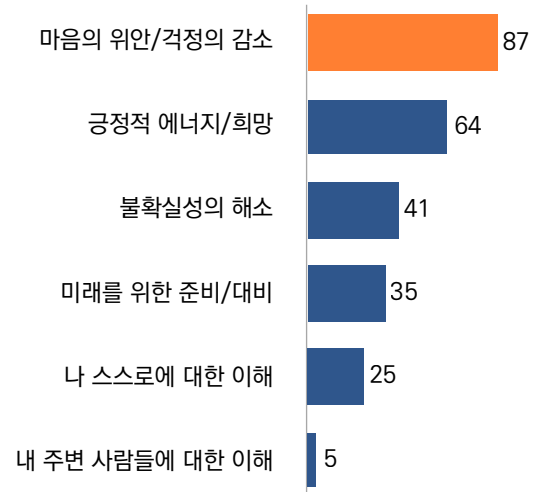
◎ 사람들은 점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 90%!

- ▶ 사람들은 운세를 통해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90%). 그러므로 사회가 불안할수록 운세를 많이 본다(80%) 그리고 그것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81%).
- ▶ 실제로 사람들에게 점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을 물어보면, 첫째 ‘마음의 위안’(87%), 둘째 ‘긍정적 에너지/희망’(64%)이라고 답했다.

[그림] 신년 운세를 보는 심리적 효과 (%)



[그림] 점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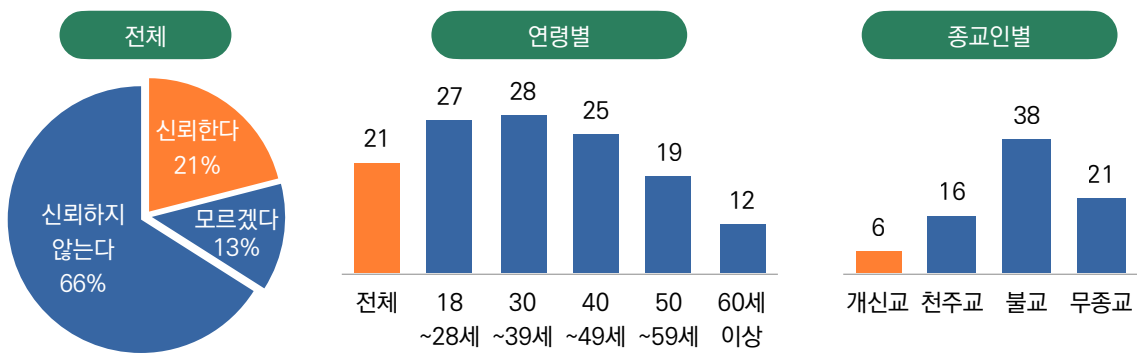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리포트, '2022 새해 계획 및 운세서비스 이용 관련 조사', 2022. 01 .19(전국 만19세-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2.01.05.-7 조사)

04

한국인, '점을 신뢰한다' 21%!

- ▶ 사람들이 점을 본다고 해서 점을 크게 신뢰하는 것은 아니다. 점을 신뢰하는 비율이 21% 밖에 안된다. 그러면 왜 41%나 되는 사람들이 점을 볼까? 재미로 볼 수도 있고, 점을 신뢰하지는 않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 답답함을 해소시켜줄 것을 찾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 ▶ 점을 신뢰한다는 비율은 40대 이하 젊은 층에서 높았다.
- ▶ 개신교인이 점을 신뢰하는 비율이 6%로 가장 낮았는데, 점을 본 비율은 앞에서 본 대로 23%였다. 약 4배 차이였다.(천주교는 약 2배가 조금 넘었다) 개신교인이 미신에 대한 믿음은 없지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 문제를 신앙과 공동체 안에서 풀지 못하고 점으로 푸는 경우가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점을 신뢰한다 (동의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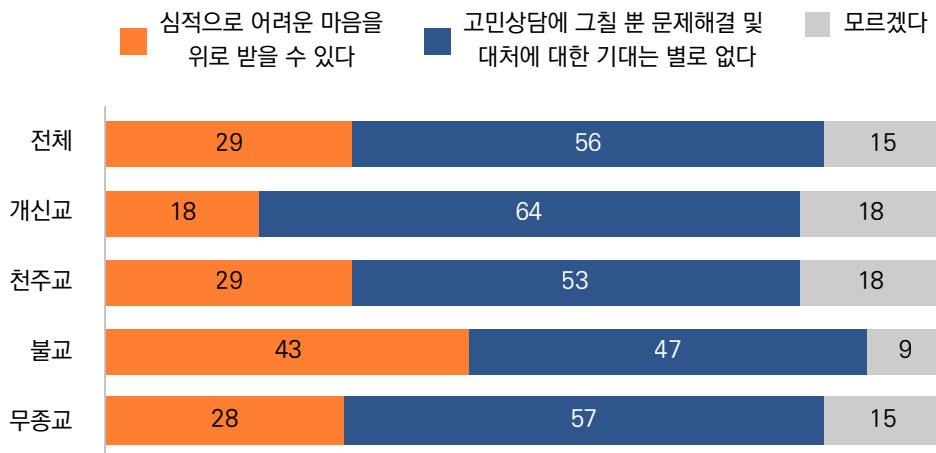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제164-2호, 2022. 01 .19(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2.01.07.-10 조사)

**4점 척도,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임

◎ 개신교인, '점을 통해 위로받는다' 18%!

- ▶ 10명 중 3명(29%)의 사람들이 점을 통해 심적으로 어려운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고민 상담에 그칠 뿐 문제 해결 대처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다는 인식은 56%였다.
- ▶ 개신교인의 경우 5명 중 1명(18%) 정도는 점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림] 점에 대한 인식 (위로 vs 기대없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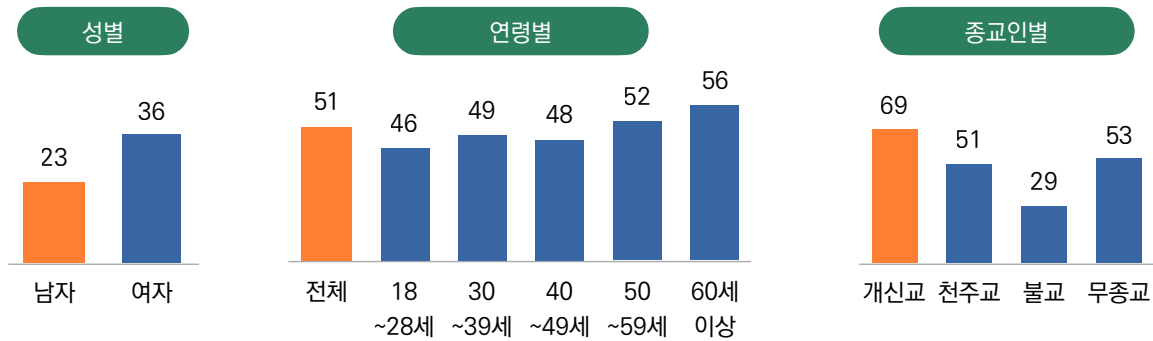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제164-2호, 2022. 01 .19(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2.01.07.-10 조사)

◎ 개신교인, '점은 미신이다' 69%

- ▶ 점은 미신인가? 51%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한다.
- ▶ 점은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50대와 60대에서 높았고, 20대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판타지 소설이 20대를 중심으로 탐독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 ▶ 종교별로 개신교인이 점을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림] 점은 미신이다 (동의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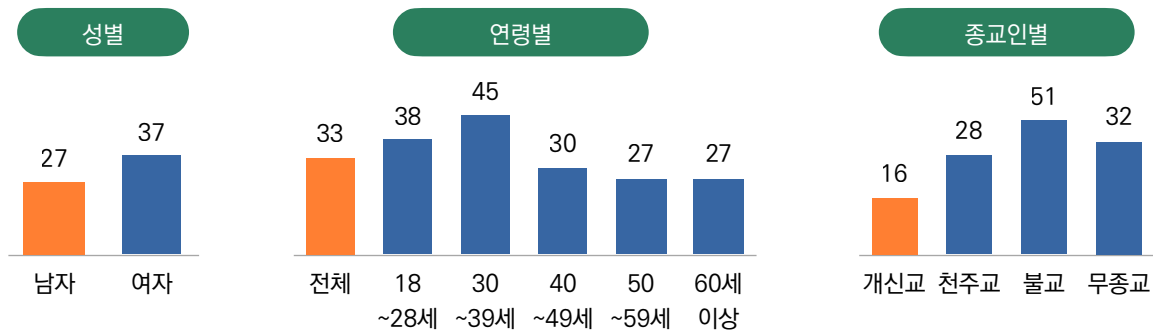
*자료 출처: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제164-2호, 2022. 01. 19(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2.01.07.-10 조사)
 **4점 척도,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임.

05

올해 신년 운세 본다, 33%

- ▶ 구체적으로 올해에 신년 운세를 보았거나 볼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로 3명 가운데 1명일 정도로 적지 않았다.
- ▶ 연령별 보면, 30대가 가장 많았는데(45%), 30대는 사회 생활 시작 연령대로서 앞날에 대한 기대와 함께 불안도 안고 있는 세대라는 특징이 있다.
- ▶ 개신교인은 16%로 다른 종교 보유자보다 신년 운세를 보는 비율이 낮았다.

[그림] 신년 운세 보았거나 볼 계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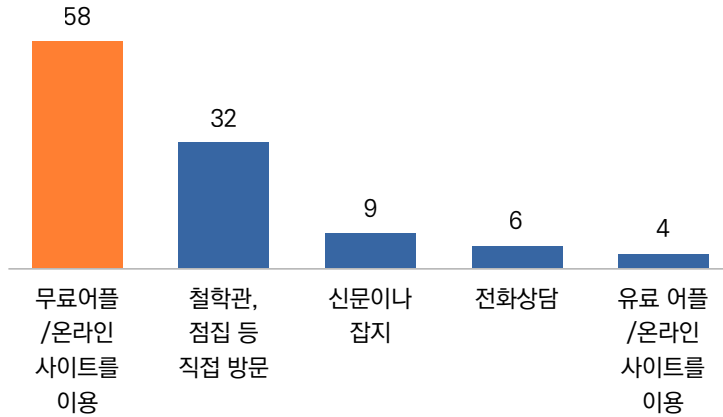


*자료 출처: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제164-2호, 2022. 01. 19(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2.01.07.-10 조사)

◎ 신년 운세, 어플/온라인 사이트 이용 58%

- ▶ 신년 운세를 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무료 어플이나 온라인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이다(58%)
- ▶ 운세를 보는 방법이 온라인화되었는데 철학관, 점집 등을 직접 방문하는 비율은 32%에 불과하다. 2030세대가 운세를 많이 보는 것도 방법이 온라인화된데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림] 신년 운세 보는 방법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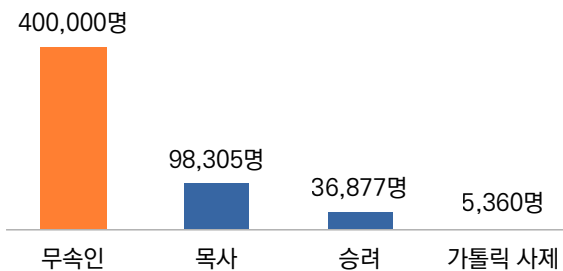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 제164-2호, 2022. 01. 19(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2.01.07.-10 조사)

06

한국, 목사 10만 명, 무속인 40만 명!

- ▶ 문체부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현황 보고서(2018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각 종교별 성직자수는 개신교 목사 98,305명, 불교의 승려 36,877명, 가톨릭 사제 5,360명으로 나타났다.
- ▶ 반면 무속신앙의 굿당은 전국에 257개가 있고, 무속인은 약 4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 자료는 2013년 자료임에 유의할 것)

[그림] 종교별 성직자 수



*자료 출처 : - 목사/승려/가톨릭사제 :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한국의 종교현황」, 2018.12.
- 무속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영성문화자원의 관광융복합 잠재력에 관한 연구', 김상태, 47P, 2013.07.

성리학이 지배 이념이었던 조선 시대에서는 무속을 일컬어 괴력난신(怪力亂神), 흑세무민(惑世誣民)이라 하여 극히 배제하였다. 유학이 종교인지 학문인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유학이 다른 종교와 달리 초월 세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유교는 현실의 질서를 중시하고 그 질서가 온전히 실현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사회로 보았으므로 신의 존재와 내세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학 혹은 유교는 무속이 괴이한 힘과 난잡한 귀신(괴력난신:怪力亂神)을 숭배하며,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미혹하고 속인다하여(흑세무민:惑世誣民) 불교와 함께 무속을 탄압하였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무속은 남북한 모두로부터 탄압을 받았다. 유물론에 기초한 공산주의 사회에서 무속을 미신이라고 하여 멸절시켜서 공식적으로는 사라졌다. 남한에서는 어떤가? 국가경제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남한에서 무속은 국민 계몽 차원에서 천대받고 사회로부터 밀려났다.

이렇게 오랫동안 탄압받아 사라져갈 것만 같던 무속이지만 그 생명력은 끈질겨서 아직도 우리 곁에 남아 있다. 조선시대에서도 무속은 민간 신앙으로 백성들 사이에서 퍼져 있었으며 양반들도 점을 보는 등 무속에 의존하였다. 궁궐에서도 여인들을 중심으로 무속을 이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조선말 명성황후도 무속에 빠져서 무당에게 진령군이라는 군호를 주고 왕실에서 굿판과 제사는 쉴 날이 없었다고 한다.

이성과 과학의 시대에 미신이라고 치부되던 무속이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도 놀랍지만,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이용하는 세대가 2030세대라는 사실은 우리를 더 놀라게 한다. '점을 본 적 있다'는 비율이 60세 이상에서는 29%에 불과했는데 30대에서는 54%, 20대에서는 49%로 60대보다 20%p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3쪽) '점을 신뢰한다'고 하는 비율도 20대와 30대가 60세 이상보다 2배 이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무속이 살아남게 된 것은 그것이 인간의 본능적 욕구

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첫째로 인간은 자기 중심적 욕망에 가득찬 존재이다. 지금보다 더 편안하게, 풍요롭게, 남보다 더 낮게 살고 싶은 생각은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욕망이다. 이 욕망이 다듬어지고 승화되면 인류 문명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지만 여과없이 표출된다면 화려하지만 곧 사라지는 불꽃과 같은 멸망으로 가게 된다. 둘째로 인간은 내일을 모르는 존재이다. 내일은 내가 오늘보다 더 나아질지 아니면 못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 속에 살고 있다. 어느 유명 무속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점이란 내 것을 지키기 위해 길흉화복을 미리 알아보는 거야!'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내일은 내가 살아남을지 아니면 도태될지 모르는 약육강식의 사회일수록 점은 힘을 발휘한다. 30대가 점을 가장 많이 보는 것도, 헬조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생존 경쟁이 치열한 한국 사회에서 막 사회 생활을 시작하기에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두렵기 때문이다.

점을 보는 것을 욕망, 불안 등으로 거창하게 해석한다고, 그냥 재미로 볼 뿐이라고 변호하는 소리도 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순수한 재미만일까? 사람들은 잠깐이라도 내 운명은 어떻게 될까라는 호기심에 이끌려 점을 본다. 결국 무속은 욕망과 불안이라는 이 두가지 심리 위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무속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살아 남아 있을 것이다.

개신교인들도 점을 본다. 그것도 10명 가운데 2명 꼴로 적지 않은 비율이다. 우리 믿음은 우리의 욕망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믿음이다.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 하나님 중심을 지향하는 믿음이다. 그러므로 무속과 우리의 믿음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다. 믿음이 혼탁해지는 시대에 순전한 믿음이 세워지기를 기대한다.

1.[코로나 이후 소득격차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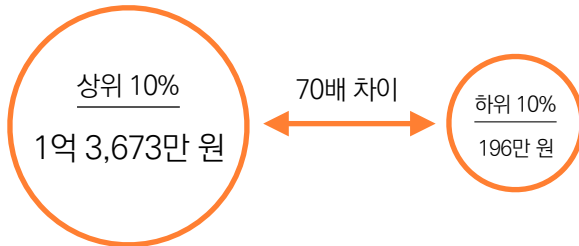
2.[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



2020년 우리나라 소득자 연평균 소득, 상위 10% 1억 3,673만원, 하위 10% 196만원(70배)!

- ▶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통합소득 1000분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통합소득 상위 10% 소득액은 1인당 평균 1억 3,673만 원이었으며, 하위 10%는 1인당 평균 196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평균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두 집단 간 70배 차이를 보였다.

[그림] 2020년 상·하위 10% 1인당 소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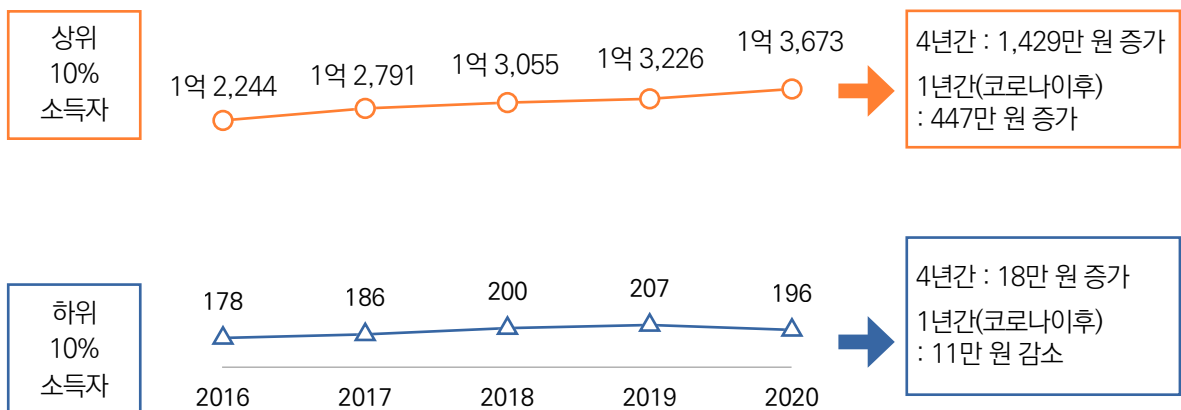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국세청,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

**소득은 통합소득 기준이며,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친 개인소득 합산액임

◎ 4년간 1인당 연평균 소득 증가, 상위 10% 1,429만원, 하위 10% 18만원

- ▶ 상·하위 10% 1인당 연평균 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상위 10%의 경우 2016년 1억 2,244만에서 2020년 1억 3,673만으로 12% 증가(1,429만 원)하였는데,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 ▶ 반면 하위 10%의 경우 2016년(178만 원)부터 2019년(207만 원)까지는 조금씩 늘다가 2020년(196만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위 10%에서는 2016년 대비 10% 증가했으나, 워낙 절대 금액이 낮아 액수로는 18만 원 증가에 그쳤다.

[그림] 상·하위 10% 1인당 연평균 소득 변화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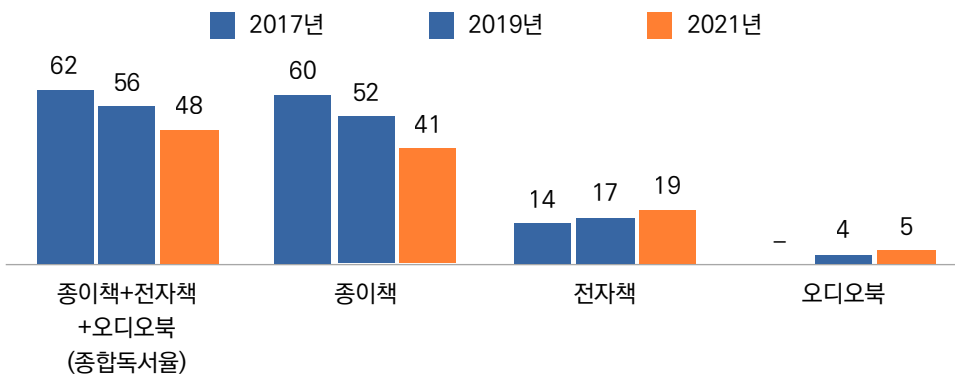
*자료 출처 : 국세청,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



우리 국민의 종이책 독서율, 2017년 60%에서 2021년 41%로 크게 줄어!

- ▶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율은 48%로 약 2명 중 1명꼴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9년 56%에서 8%p 줄어든 수치이다.
- ▶ 특히 종이책의 경우 2017년 60%에서 2021년 41%로 4년 사이에 무려 19%p나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자책은 꾸준히 독서율이 상승하고 있다.

[그림] 연간 독서율 (성인, %)



*자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 2022.01.14.(성인 6,000명, 2021.09.01.~11.12, 대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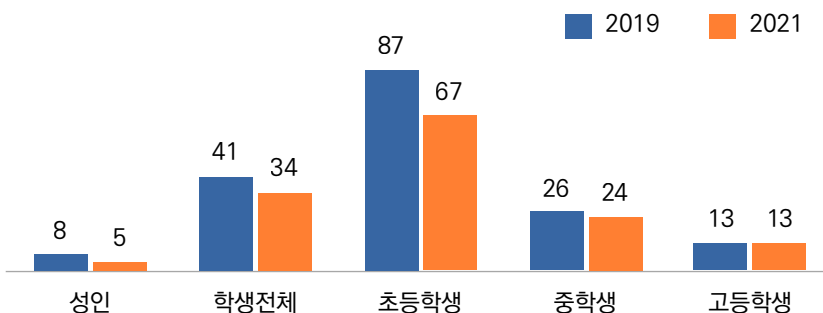
** 연간 종합독서율: 지난 1년간 일반도서(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 제외)를 1권 이상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종이책, 전자책, 소리책(오디오북) 포함)

*** 2017년에는 오디오북은 조사하지 않음

◎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량, 2년 사이 8권에서 5권으로 무려 38%나 줄어들어!

- ▶ 한편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량은 5권으로 2019년 8권에서 무려 3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유튜브, 인터넷 등의 범람으로 상대적으로 독서량이 점점 더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 ▶ 지난 2년간 독서량 변화의 특징을 보면, 성인의 감소율이 가장 컸고, 학생 중에서는 특히 초등생의 독서량 (87권→67권)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우려된다.

[그림] 연간 종합 독서량 (성인 vs 학생,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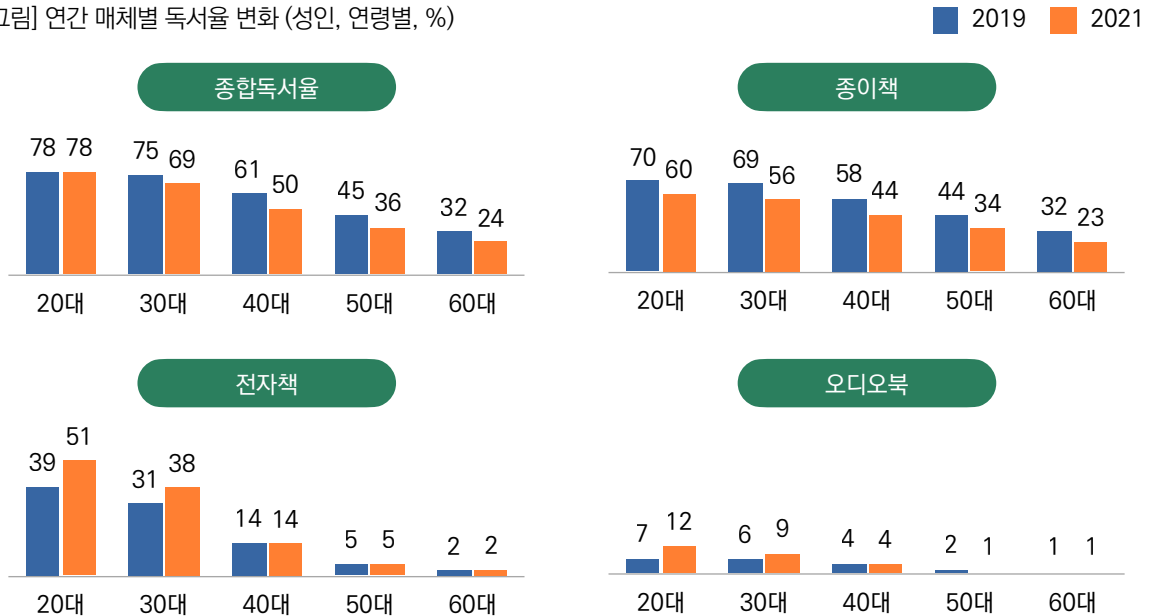
*자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 2022.01.14.(성인 6,000명, 초등학생(4학년 이상)~ 고등학생 3,320명, 2021.09.01.~11.12, 대면조사(성인)와 학교방문 자기기입식 조사(학생))

** 연간 종합독서량: 지난 1년간 읽거나 들은 일반도서 권수[교과서/참고서/수험서 제외, 종이책/전자책/소리책(오디오북) 포함]

◎ 20-30대 젊은층, 전자책/오디오북 이용 증가로 2019년 대비 독서율 하락하지 않아

- ▶ 연령별 독서율 변화를 보면, 20대 연령층을 제외한 30대 이상층의 경우 독서율이 모두 하락했는데, 특히 지난 4년 사이 60세 이상 고령층 독서율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 20대 청년층의 독서율만 2017년 이후 감소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종이책 독서는 줄었지만, 전자책과 오디오북 사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림] 연간 매체별 독서율 변화 (성인, 연령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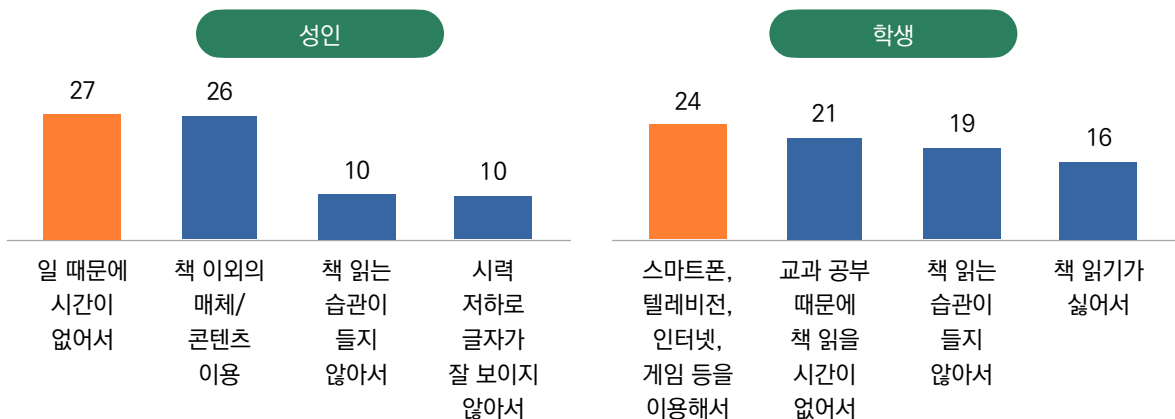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 2022.01.14.(성인 6,000명, 2021.09.01.~11.12, 대면조사)

◎ 성인, 학생 모두 4명 중 1명 가량, 독서 장애요인 '스마트폰, 인터넷 등의 매체 이용'

- ▶ 독서 장애 요인에 대해서 성인은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27%)가 가장 높았고, 학생들은 '스마트폰, 텔레비전, 인터넷 게임 등을 이용해서'(24%)가 가장 높았다.
- ▶ 두 집단 모두에서 사용 목적의 차이는 있겠지만 4명 중 1명 정도는 스마트폰 등의 매체의 영향을 받아 독서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독서 장애 요인(성인/학생, 상위 4위) (단위: %)



*자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 2022.01.14.(성인 6,000명, 초등학교(4학년 이상)~ 고등학교 3,320명, 2021.09.01.~11.12, 대면면접 조사(성인)와 학교방문 자기기입식 조사(학생))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483호\(2022년 2월 3주\) - 대선 후보 지지도, 정당지지도 등](#)

[전국지표조사\(4개 주요 조사기관\) 리포트 제65호\(2022년 2월 3주\) -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등](#)

◎ 사회 일반

[4050 중년남 뛴치는 고독사...5년간 2735명 고립속 생 마감](#)

연합뉴스_2022.02.21.

[청소년 4명 중 1명 "통일 필요 없다"... '통일 냉소' 매년 늘어](#)

한국일보_2022.02.18.

[국민 47% "차기정부 1순위 과제는 경제활성화"](#)

국민일보_2022.02.15.

[내 월급 수준은?...'320만원' 넘으면 평균 이상입니다](#)

국민일보_2022.02.21.

[난임치료 여성근로자 40% 퇴사 경험...난임 휴가도 제대로 못써](#)

연합뉴스_2022.02.17.

[백신 맞고 '절대안정' no...운동하면 항체 더 증가한다](#)

매일경제_2022.02.19.

[커피값 오른건 예고편? 지금 커피가 처한 현실](#)

국민일보_2022.02.19.

["교내 차별 너무 힘들어요"... 학업 중단 30%가 '부적응'](#)

세계일보_2022.02.22.

[산업재해 60%가 '고령 근로자'... "신체능력 떨어졌는데 일터는 되레 열악"](#)

한국일보_2022.02.22.

[차기 정부 성평등 과제 1순위는? 여성·남성 모두 "일·생활 균형"](#)

여성신문_2022.02.21.

◎ 경제

[올해 집값은...중개업소 63% "하락", 부동산 전문가 64% "상승"](#)

연합신문_2022.02.20.

[작년 정부 총지출 600조 역대 최대, 재정적자는 30조](#)

중앙일보_2022.02.18.

["2026년 한국 국가부채 급증...OECD 非기축통화국 중 3위"](#)

연합뉴스_2022.02.17.

[12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고용회복세 뚜렷](#)

한겨레_2022.02.16.

[한국기업 여성이사 비중, 중동국가 빼면 '세계 꼴찌'](#)

한겨레_2022.02.16.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기독교 / 종교

[탈북민 담임 목사 45% “사례비가 뭔가요”](#)

[국민일보_2022.02.16.](#)

[세계 인구 1.18% 느는 새 기독인 증가 1.17% 그쳤는데 기독교 성장?](#)

[국민일보_2022.02.16.](#)

◎ 기획기사 1 : 2022년 한국교회를 전망한다 (기독신문)

[1. 데이터로 보는 한국교회 _2022.01.16.](#)

[2. 2022 기도다이어리 _2022.01.21.](#)

[3. 대담:평신도의 시선 ‘교회, 코로나를 넘어’ _2022.02.04.](#)

[4. 워드 코로나, 워드 처치 _2022.02.11.](#)

◎ 기획기사 2 : 〈2022 신년기획 청년정치를 말하다〉 (매일경제)

[1. 20년전 청년 '86세대'...이젠 청년 걸림돌 _2022.01.18.](#)

[이대남 이대녀 싸울 때...20대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386 _2022.01.18.](#)

[청년표 매달리는 韓정치...정작 2030 낄 자리 없다 _2022.01.18.](#)

[2. 돈·인맥 없는 청년정치인...승자독식 선거제 앞에서 좌절 _2022.01.19.](#)

[20대 대선 관심도 전 연령층서 최저 _2022.01.19.](#)

[3. "기초의원만 나가도 4천만원 들어...출마 연령 낮춰봐야 소용없어" _2022.01.24.](#)

[대선배들 나가는 종로처럼..."청년 위한 전략공천지역 만들자" _2022.01.24.](#)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만나교회, 문호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삼천포교회, 새에덴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선창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학교,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광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안양감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올림교회, 이름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탐동감리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재)기독교선교해설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마을학연구소, 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 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지앤컬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핏빛회,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메가리서치,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자인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 후원 개인 |

강영원, 고영관, 고영수, 고인구,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철, 김영훈, 김용섭, 김윤철, 김운환, 김은선, 김은진,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흥기, 계만석, 나광균, 남기환,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준하,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연우,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 섭, 송으뜸, 신명자, 신지현,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영조, 윤치호, 이경만, 이국희,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상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수,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요셉,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조형,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춘봉, 이 현, 이현구, 이현식, 이호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재영, 장형철, 전병철, 전용림, 전치영, 정기목, 정부활,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현, 천성환, 최명영, 최상도, 최상현, 최용기, 최은아, 최 준, 최준혁, 최태영, 최현갑, 한병록, 한재용, 한진광,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혜숙,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신규 후원 |

신인순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일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민선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symin83@mhdata.or.kr

유영민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 MOU 기관 |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 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해외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아드폰테스,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 연구소 소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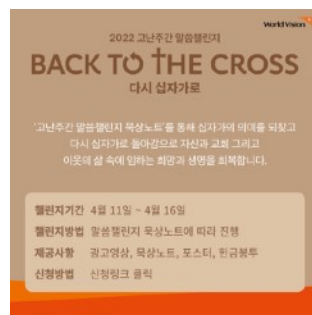


신청

2021년 작년 한해 동안의 <넘버즈> 전체를 모아 엮은, <2021 통계로 보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Vol.3>을 출판하였습니다.

출판 이벤트로 신청하시는 100분께 추첨을 통해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신청을 눌러 받으실 성함, 전화 번호, 우편 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 주세요.

| 월드비전 고난주간 이벤트 |



소개

신청

2022 고난주간 말씀챌린지

고난주간 묵상노트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챌린지기간 : 4월 11일 ~ 4월 16일

챌린지방법 : 말씀챌린지 묵상노트에 따라 진행

제 공 사 항 : 광고영상, 묵상노트, 포스터, 현금봉투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